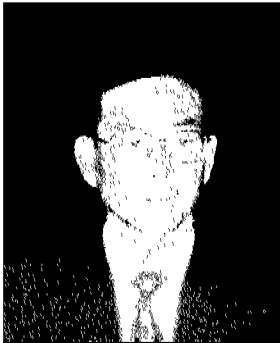


항공기산업 육성발전전략

통상산업부 항공우주공업과 과장 박 양 우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유치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위해 도전해야 할 미래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산업발전의 단계를 보면 '60년대는 섬유등 경공업 '70년대는 가전·조선산업, 80-90년대는 자동차, 반도체산업을 위주로 했지만 21세기에는 항공우주산업이 중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통신사업도 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종합적인 항공우주산업이 우리가 반드시 도전해야 할 산업이다. 현재 기계, 자동차, 반도체 분야등은 세계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으나 항공우주산업은 그 기술차이가 매우 크므로 이는 우리가 개척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항공우주산업분야에는 21세기에 무한한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 육성한다면 세계시장의 한 분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우주산업은 기술적으로 어느 산업보다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이므로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여타 산업의 기술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위상에 있어서도 항공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는 선진산업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산

업이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통상산업부가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의 진행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각계의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다. 이는 에어쇼를 계기로 대외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정책을 다루고 있는 관계부처,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항공우주산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것이다.

후속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

'99년 KFP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공백기간을 메울 수 있는 후속사업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그동안 투자된 설비와 확보된 인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되고 신규사업을 조속히 개발하여, 투입된 인력과 설비가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부품산업등 하부기반 구축

항공우주산업이 유치단계이고 작은 시장규모에 비해서 업계의 외욕이 앞서는 경우가 있으며 과당경쟁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그동안 군수분야위주의 기술을 습득했지만 이제는 이와 병행하여 민수용 기술도 함께 습득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용기술을 민항기술로 연계시킬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항공산업의 하부구조인 부품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립분야 뿐 아니라 부품산업에도 중점을 두어 하부구조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조직체제 및 지원제도 정비

관련전문기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개발 전략이 구상된 구도하에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분야에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조직체제와 지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에따른 예산지원 및 확보등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업체간 전문생산체제 구축

업체간의 과당경쟁문제에 대해서는 전문화체제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지금부터라도 군살을 빼내 강력한 전문생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에서는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생산체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수출산업화를 위한 품질인증체제 확립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국내 품질인증체제나 BASA협정등의 체결이 필수적이므로 업체가 수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건교부, 외무부등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항공기 품질인증체도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항공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통산부는 '2000년대 중소형기분야 세계 제1위의 생산국가 부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물론 현 시점에서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부나 학계·연구계·업체가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 임한다면 2000년대초에는 중소형기분야에서 세계1위의 생산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별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하는데 민항기 부문에서는 중형항공기산업을 추진하고, 군수사업은

KTX-II, 다목적헬기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 항공기 산업규모는 미미한 실정이지만 정부의 목표대로 달성된다면 1차적인 목표로 2005년에는 항공기생산규모를 105억불로 증가시키며 수출도 65억불수준으로 끌어올린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중형항공기사업의 경우 한·중협상의 결렬로 일반국민이나 비항공관련자들은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사업추진은 중형항공기개발사업의 대안중 하나일 뿐이며 현재 타 협력분야를 적극 모색중이므로 머지않아 새로운 협력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기술로 주요부품과 엔진등의 개발생산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초대형여객기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형항공기개발과 국제공동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10년 또는 20년후에는 항공기 독자개발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는 내수 및 수출산업으로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KTX-II사업의 경우 관계부처와 방향설정에 대해 논의중에 있으며 등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헬기사업의 경우도 국방부등과 현재 협의 중이며 어느 시기에 이르면 업체들과 중지를 모아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서로 나눠가지려 경쟁하는 것보다도 외국의 선진기업들과 경쟁한다는 마인드로 업체끼리 서로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머지않아 우리손으로 만든 항공기를 만들어 창공을 날 수 있는 미래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